

재정·포교분야 성과 ‘뚜렷’

2016 종단 주요정책 점검① 주지인사고과제도 확대

조계종은 2016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와 국민에 희망을 주는 종단’이 될 것을 서원했다. 본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총무원장 계획 가운데 주요 정책을 선정, 사업추진 배경과 그간의 성과, 향후 과제를 짚어봤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주지인사고과제도를 올해 5개 교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해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각 교구본사에 주지인사고과제가 도입되면 교구 내 계층 포교 및 복지 활성화는 물론 합리적인 인사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선 사찰 주지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보완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공심(公心)에 바탕한 사찰운영을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주지인사고과제도는 가장 착실하게 준비되고, 집행된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한국불교는 문종과 인연으로 사찰 주지 인사를 시행해온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대적인 공정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인사를 둘러싼 그릇된 관행을 철폐하고, 지역과 종단에 기여하는 사찰로 그 위상을 높이고자 종단 최초로 주지인사고과제도를 도입했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 개정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 현재 직할교구 공찰에 국한해 시행하고 있다. 사찰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포교활성화, 재정 합리화, 주지 스님들의 전문성 강화 등을 목표로 세부적인 평가 방식을 마련해 주지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종단에 따르면 직할교구 전체 50여 개 공찰 가운데 43개 사찰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주지인사평가를 지속 시행해 오고 있다.

시행 5년 만에 직할교구는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 포교 활성화와 복지 활동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종단에 따르면 전체 73%의 사찰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각종 포교 행사와 불교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8곳의 복지기관의 위탁운영을 맡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도회 구성과 교육활동은 82%대로 사찰 운영을 위한 신도회 활성화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사찰별로 행해지던 총무행정 관련 서식 작성 및 회계처리 등은 균일화돼 총무행정



삽화=최영순

지역 교구 스님들 취지엔 공감
 도입시기 평가방식은 의견 분분

인사고과제도 전 교구 확산 위해
 교구별 특수성 반영한 기본지침
 평가 세부내용 마련 우선 추진

본사주지회의 등 의견수렴 거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교구 선정

은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총무는 총무, 회계, 재산관리 등으로 분류돼 평균 86%의 사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결계포살과 예결산서 제출은 각각 87%, 86%대를 유지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평균 40%의 사찰에서 예결산액이 증가했으며, 전체 90% 이상의 사찰이 분담금을 완납해 종단 공찰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사찰운영위원회는 79%대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신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과 교무금 재 납부는 10%대에서 4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입초기엔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지 스님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

은 “공찰 주지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한 데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는 사설사암의 장건주와도 간담히 협의해 사설사암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지인사고과제도는 이제 ‘전 교구로의 확산’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종단은 해당 교구 특수성을 반영해 사찰 주지 임명에 관한 일정기준을 정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선 사찰 주지 스님들은 대체로 주지인사고과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평가 항목 및 도입 시기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화합차원에서 문종중심으로 인사가 안배되는 점 등을 들어 즉각적인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스님은 “인사가 문종이나 정치적 관점에 따라 이뤄지게 되면 포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목표의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지인사고과제도를 높이 평가하지만, 전 대중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급세 시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구본사 주지 스님은 인력이나 재정 면에서 제도를 도입할 만한 여건을 갖춘 도심 사찰과 인구수가 적고 노년층이 다수인 지역 공찰 등에 균형적인 잣대를 제시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스님은 “지역에서 주지인사고과제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직할교구 차원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 널리 알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주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다양한 표본조사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스님은 교구별 특수성을 반영한 기본지침과 평가 관련 세부내용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지현스님은 “올해 5개 이상의 교구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지침 등을 직할교구 주지인사고과제도를 기반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교구본사 총무실장 회의를 통한 점검과 의견수렴, 교구본사주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내용을 정비해 나가고,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교구를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희망의 길벗’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20명 위촉 ‘사회·이웃과 함께하는 종단’ 첫 발

“희망의 길벗”을 새해 원력으로 세운 조계종이 사회 갈등 현장 곳곳에서 활동할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을 처음으로 위촉하며, ‘사회와 함께하는 종단’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스님 2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스님들은 해운, 덕림, 혜전, 해문, 도철, 지건, 고금, 선현, 민성, 승묵, 유엄, 해강, 우담, 법상, 동환, 해동, 관해, 원해, 득원, 도희스님 등 비구 14명, 비구니 5명, 사미 1명으로 총 20명이다.

노동문제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기존의 노동위원회가 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 영역을 노동, 여성, 빈곤, 인권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5명의 노동위원 스님들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회노동위원회는 실천위원 스님 20명을 새롭게 위촉함으로써 폭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게 됐다. 스님들뿐만 구성된 실천위원들은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회의기구인 노동위원, 재가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들과 함께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인 문제 등 사회 갈등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해법을 모색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실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위촉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4년 동안 노동위원회가 약자의 편에서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왔던 것처럼 새로 위촉된 실천위원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 갈등 현장에서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각자 맡은 소임이 있겠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서 보살심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천위원 가운데 유일한 사미인 도희스님은 “노동, 인권 등 사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위원회 소식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다”며 “실천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지난 26일 위촉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스님 20명이 총무원장 자승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과 자리를 함께 했다. 3년 임기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의 길벗’이 될 것을 다짐하는 스님들의 표정이 보인다. 김형주 기자 cooljoo@bulgyo.com

중앙종회 제205회 임시회 3월15일 개최

2015 중앙총무기관 결산검사

포교원장 선출의 건 등 다뤄

제205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3월15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5일의 회기로 개최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26일 제7차 의정단 상임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205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열리는 예산종회와 달

리 전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다루는 결산종회 성격을 지닌다. △종법 제·개정 △포교원장 선출 △조심호계위원회 선출 △범규위원 선출 △동국대이사후보추천동의 및 추진 △2015년도 중앙총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 사찰 결산검사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의안 접수 마감은 3월8일, 정책질의 접수 마감은 3월10일이다.

▶관련기사 2면

중앙종회는 원활한 본회의의 진행을 위해 총무원 및 교육원·포교원 부·실장과 산하기관장의 본회의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lgyo.com

■ 비구니 계몽 총망라한 ‘사분울 비구니 계상표해’ 발간 3면 ■ 새 연재 / 수불스님의 禪 이야기 10면

법륜 스님의 행복

법륜 지음 | 최승미 그림

지금 이 순간 삶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고, 부조리한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삶의 나침반

법륜 스님의 행복

법륜 지음 | 최승미 그림 나뭇잎마음

스님, 온전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2016년 행복 안내서